

# 벼랑 끝에 흐르는 폭포수엔 아득한 사연이...

## 폭포가 아름다운 사찰 1 - 양산 홍룡사

폭염이다. 태양만이 온전히 숨을 쉬고 모두는 고단하다. 산문이 시작되는 일주문도, 절로 오르는 숲길도, 숲에 사는 나무들도, 나무에 매달린 매미들도, 숲길 끝에서 만난 산사도 폭염 속에 서있다. 경상남도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천성산 기슭. 산사 경내에는 폭포가 하나 있다. 입추도 아랑곳하지 않는 폭염에 폭포의 물줄기도 힘을 잃었다. 홍룡폭포가 있는 홍룡사다.

### 원효 스님과 홍룡폭포

원효(元曉 · 617~686)스님은 어느 날 저녁 공양 때 해안으로 당나라의 태화사를 보게 된다. 원효 스님은 절이 산사태로 곧 매몰될 지경임을 알게 된다. 마침 태화사는 천 명의 대중이 저녁 공양 중이었다. 그대로 두었다간 대중 모두가 죽게 될 지경이었다. 원효 스님은 공양 중이던 밤상의 그릇을 모두 내려 놓고 상다리를 접어 밤상을 태화사를 향해 던진다. 태화사 허공에 회오리바람이 일면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 이상한 소리에 마당으로 나온 대중은 허공에 맴돌고 있는 밤상을 보게 된다. 원효 스님이 던진 밤상은 대중을 절 밖으로 유인한다. 대중이 밤상을 따라 절 밖으로 나오자 산이 무너지고 태화사는 매몰된다. 그리고 원효 스님의 밤상이 땅에 내려앉는다. 죽을 고비를 넘긴 태화사 대중이 땅에 떨어진 밤상을 들어보니 '해동원효 적판구중(海東元曉 擲板救衆)', '신라의 원효가 판을 던져 대중을 구한다.'고 적혀 있었다. 대중들이 눈물을 흘리며 신라를 향해 절을 한다. 원효 스님의 밤상이 다시 허공으로 솟아올라 신라로 돌아오니 태화사 대중이 밤상을 따라 신라까지 오게 된다. 그리고 천 명의 대중은 원효 스님의 제자가 된다. 원효 스님은 천 명의 제자를 가르치기 위해 천성산에 89암자를 짓고 훗날 화엄불이라 불리는 별관에서 화엄경을 강설했다. 그리고 천 명의 제자들은 모두 득도한다. 그래서 천성산(千聖山)이다. 홍룡사도 원효 스님의 89 암자 중의 하나다. (승고승전)에서 전한다.

### 홍룡사에 가면

일주문을 지나면 1918년 석은 이재영이 세운 가흥정(駕虹亭)이 있고, 가흥정 옆으로 아담한 쉼터가 있다. 쉼터에 앉으면 대나무숲과 마주하게 되는데, 대숲을 바라보고 있으면 폭염 속에서 울고 있는 매미들의 울음소리가 잠시 폭염을 잊게 해준다. 대숲을 지나면 대웅전이다. 법당 옆으로 돌계단을 오르면 홍룡폭포가 있다. 원래 홍룡(虹瀾)폭포였던

홍룡폭포는 천룡(天龍)이 살다가 무지개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무지개 '홍'자를 쓰는 홍룡폭포는 물이 많아 청명한 날엔 바위에 부딪힌 물보라가 무지개를 만든다.

폭포를 흐르는 물은 그 옛날 원효 스님의 회상이었던 화엄법을 지나왔다. 그 옛날 원효 스님의 밤상을 따라 당나라에서 온 천 명의 제자는 원효 스님의 화엄경 강설을 듣기 위해 이곳 홍룡폭포에서 몸을 씻었다. 홍룡사에는 국보나 보물 같이 도장 찍힌 유물은 없다. 하지만 홍룡폭포가 있다. 지금의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홍룡폭포가 있다. 그 시절을 지켜 본 홍룡폭포야말로 '유물'이 아닐까. 절에 폭포가 있기는 쉽지 않다. 홍룡사에는 홍룡폭포라는 유물이 있다.

### 홍룡사는

신라 문무왕(661-681) 때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 원효 스님이 당나라에서 온 제자 천 명에게 천성산 화엄불에서 화엄경을 설법할 때 낙수사(落水寺)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는데, 당시 제자들이 스님의 설법을 듣기 전에 이곳의 폭포에서 몸을 씻었다하여 낙수사라 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타 수 백년 동안 절터만 있다가 1910년대에 법화 스님이 중창했다. 1970년대 말 우광 스님이 주지로 부임한 뒤 중건과 중수를 거듭하여 오늘에 이른다. 현존하는 전각은 대웅전, 종각, 선방, 요사채 등이 있고, 폭포 옆에 관음전이 있다.

홍룡사는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의 친견설화가 전해지는 관음성지다. 무실전에는 천수천안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다.

### 천성산과 내원사, 원효암까지

홍룡폭포는 양산 8경 중의 4경이다. 그리고 홍룡폭포와 홍룡사를 품고 있는 천성산 역시 양산 팔경 중의 하나다. 홍룡사는 천성산도 함께 다녀오는 것이 좋다. 천성산 산행은 홍룡사 입구를 출발해 삼거리, 쉼터바위, 화엄불 삼거리, 원효암 삼거리, 천성산 제 2봉, 원효암, 전망대, 쉼터바위 편백숲을 거쳐 다시 홍룡사 주차장으로 내려오는 코스다. 약 10km의 산행으로 소요 시간은 약 4시간 정도다.

천성산은 원적산이라고도 한다. 높이는 922m이다. 태백산계에 속하며, 남서쪽에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 있는 산을 원효산(元曉山)이라 하였는데, 양산사에서 이전의 원효산을 천성산 주봉(主峰)으로 하고, 이전의 천성산(812m)을 천성산 제2봉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나무 이정표에는 예전 명칭을 그대로



원효 스님이 천성산에 지었던 89암자의 하나인 홍룡사엔 당나라에서 온 원효 스님의 천명의 제자들이 몸을 씻었던 홍룡폭포가 있다.

로 사용하고 있다. 많은 계곡과 폭포 및 뛰어난 경치로 인해 예로부터 소금강산(小金剛山)이라 불렀다.

제2봉의 북서쪽 사면(하북면 용연리)에는 내원사(內院寺)가 있다. 희귀한 꽃과 식물·곤충들의 생태가 잘 보존되어 있는 화엄늪과 밀밭늪은 생태학적 가치가 매우 높으며, 가을에는 울창한 억새밭이 장관을 이룬다. 특히 산 정상은 동해의 일출을 가장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내원사 계곡 역시 양산 8경 중의 하나다.

원효암에서 홍룡사쪽으로 15분 정도 내려가면 천성산 절경 중의 하나인 편백숲을 볼 수 있다. 홍룡사 가는 길은 천성산과 원효암, 내원사까지 함께 다녀올 수 있는 길이다.

### 다시 홍룡폭포

그 옛날,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신라 땅을 밟았던 천 명의 제자는 이 곳 홍룡폭포에서 몸을 씻었다. 신라의 땅을 밟은 인연도 그렇고 폭포에서 몸을 씻은 것도 그렇고, 볼 수 없었던 그 시절의 이야기는 '신이한 이야기'로 다가오는 '유물'이 아닐 수 없다. 그 옛날 몸을 씻던 이국의 수행자들은 가고 없지만 화엄법을 지나온 물이 변함없이 벼랑 끝을 흘러내리고 있다. 벼랑 끝에서 말없이 떨어지는 물줄기에도 아득한 사연이 있었다. 연일 폭염이다. 모든 것이 힘겹게 서있는 오늘도 언젠가는 아득한 사연으로 남을 일이다. 대숲에서 매미들이 다시 울어댔다. 글·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o@hyunbul.com

### 주변보기

#### <사찰>

▲내원사 / 양산시 하북면 내원로 207  
천성산 기슭에 위치한 내원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한 사찰로 6.25때 불탄 것을 1958년 수옥 스님이 중창했다. 절 아래 4Km 정도 뻗어있는 계곡은 소금강이라 불리울 만큼 경치가 아름답다.

▲원효암 /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산6-1번지  
양산시 상북면 대석리 원적산에 있는 암자다. 646년 원효 스님이 창건했다. 1905년 효은 스님이 중창했다. 내원사 부속 암자다. 원효 스님의 89암자 중 하나다.

#### <가볼 만한 곳>

▲배내골 / 양산시 원동면 대리, 선리  
영남알프스라고 하는 가시산 고봉들이 감싸고 있으며, 산자락을 타고 흘러내리는 맑은 계곡물이 모여 한 폭의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곳이다. 맑은

계곡 옆으로 야생 배나무가 많이 자란다 하여 이천동(梨川洞), 우리말로 배내골 이라한다.

#### <숙박>

▲대운산자연휴양림 / 양산시 탑골길 209(용당동)  
대운산 서북쪽 자락에 위치한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회의실, 산책로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온 가족이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이다.

▲해운청소년수련원 / 양산시 하북면 삼수리 328-3번지 / 055-384-0061  
가시산 자락에 위치한 넓고 푸르른 25만여 평 삼신구릉지의 사계절 종합 관광휴양지로, 2,500여명의 대단위 숙박시설이다.

#### <식당>

-솔밭촌 / 055-374-0158 산채비빔밥, 추어탕  
-용문객잔 / 010-4947-0203 갈치정식, 도루묵매운탕  
-용문기든 / 055-375-8582 잔치국수  
-고산식당 / 055-374-3316 묵은지전골, 청국장, 보리밥



일주문을 지나면 아담한 쉼터가 있다.



쉼터에서 바라볼 수 있는 대나무 숲

## 불교종합쇼핑몰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 붓다북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